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경건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임원회는 쉽니다.

26일(화) 중고등부에서 태안으로 봉사를 갑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가셨던 목사님께서서는 3월 1일(토) 오후 3시 3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가능한 한 예배 시작 10분전에 오시고 먼저 오신 분들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 의자의 중앙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봄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작은 화분에 봄기운 담아 고마운 분께 선물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위원	김철수 조문규 최철수 하정석 박애순 진정숙
헌금위원	한완식 박홍재 (보조:다른 재무부원들)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8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www.chungpa.or.kr

새로움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주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은 한 겨울 눈을 맞고 들떠있는 보리밭과도 같습니다. 농부가 새싹 움트길 기다리며 땅을 꺾꺾 눌러대는 것처럼 세상사에 들떠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꺾꺾 눌러주십시오. 거친 숨을 고요케 하시며 본래의 마음 자리로 돌아가 주님을 마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회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불 것을 못보고 안전에 무감각해져 사선을 넘나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극히 작은 이도 귀하게 대하고 사소한 것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를 위해 기꺼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조병무 송양진 김근중 정옥영 김준호 곽해자 김혜권
박창운 허정윤 임창선 배근수 김금순 정완수 김재광 전월수 임고운
양재성 임미심 허호범 권미숙 강인식 김정숙

월정헌금:

김명순 박석희 조항미 이봉배 이지훈 이유선 방극숙 하현철 최성애
송임희

감사헌금:

김철수 김인걸 문금석 정복순 맹은선 이해동 진정애 최문희 한경숙
배삼순 오정숙 오자영 임 영 정경례 김정섭 오래된미래 무명5

생일감사헌금: 오래된미래 정두리

100주년 기념헌금 :

정두리 이봉배 중등부신입생 무명1, 양가람(우물헌금)
(100주년 헌금 누계 : 163,292,000원)

	장 해 숙	장 해 숙	정 두 리	송 임 회
	노 순 옥	정 경 례	정 경 례	서 정 순
	임 정 자	임 정 자	정 복 순	서 원 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곽 해 자
	안 정 숙	박 애 순	박 애 순	박 옥 순
	박 흥 재	곽 권 희	곽 권 희	김 춘 려
	박 효 선	허 정 윤	홍 복 선	허 정 윤
	최 숙 화	권 미 정	이 감 재	권 미 정
	이 순 정	김 금 순	김 금 순	이 봉 옥
	이 형 숙	권 미 숙	권 미 숙	김 필 순
	안 흥 숙	오 현 정	오 현 정	정 현 주
	백 해 숙	정 옥 영	정 영 선	백 해 숙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김 명 희
	이 영 란	박 미 영	박 미 영	윤 정 화
	박 해 경	최 영 혜	임 창 선	조 항 미

달개비꽃 잉크

- 정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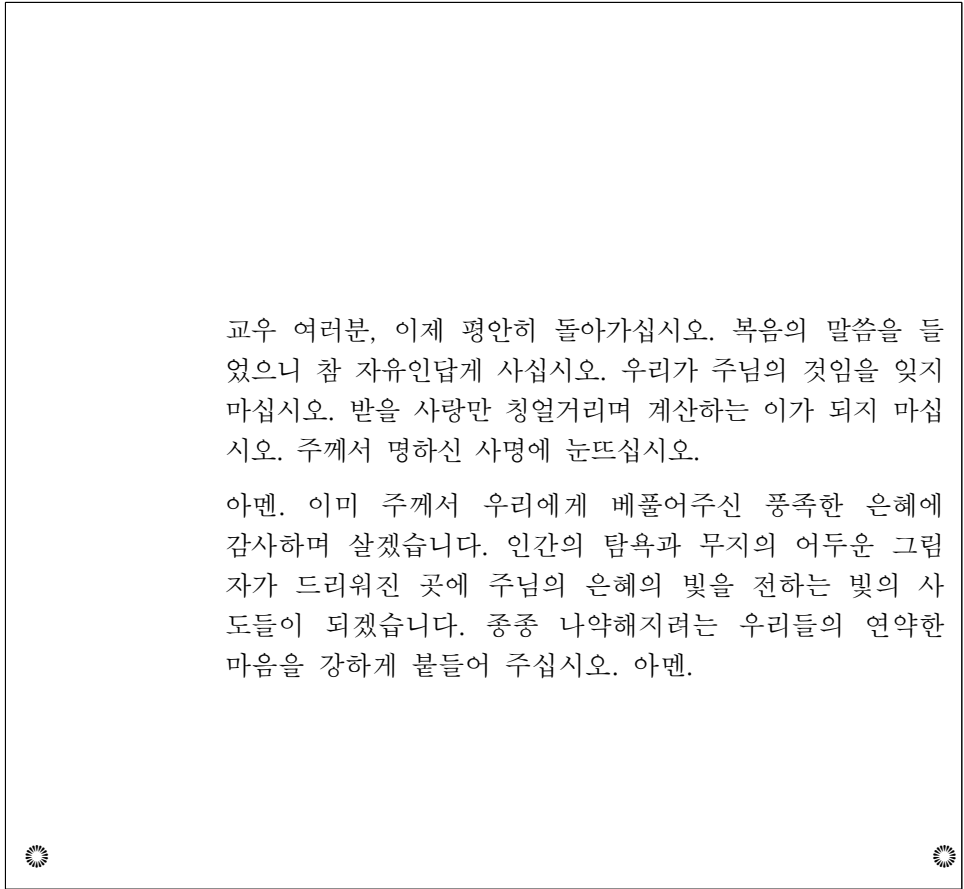
작은 달개비꽃을 으깨 푸른 꽃잎 잉크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정지용의 글을 읽었다. 1938년 서대문 밖으로 이사 갔을 때 일이다. 편지에다 그는 서울에도 피꼬리 울음을 들을 데가 있노라고 썼다. 편지를 받고 황해도 안악 사는 친구는 축하하는 답장을 보내오고, 전라도 장성 사는 벗은 집구경 하겠다고 우정 그 먼 길을 찾아 올라왔다.

망한 나라에서 왜놈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며 이견승이 조국을 등지고 만주로 망명하여 간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해마다 가을이 되면 들국화를 따서 봉투에 담아 만주로 보낸 사람이 있었다. 국화가 피지 않는 만주 땅에서 그 내음 맡으며 망국의 설움을 달래시라는 뜻이었다.

꽃잎 잉크로 쓴 희미한 편지를 받고 빙그레 웃었을 벗들의 표정과, 조선 들판의 매운 향기를 머금은 국화 꽃잎을 앞에 두고 주루룩 눈물을 떨구었을 뜻 높은 선비의 주름살 팬 얼굴이 선연히 떠오른다. 아 마득한 옛일 같은데 따지고 보면 그리 오래된 일도 아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고 했다. 무늬 없는 삶 속에는 기쁨이 깃들지 않는다. 생활의 여유는 물질의 풍요와는 상관없어 보인다. 세상일은 하면 할수록 끝이 없다. 사람들은 바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도 자꾸 일을 만든다. 그러는 사이에 마음맡은 나날이 황폐해져서, 마음의 무늬가 벗어내는 잔잔한 감동을 만나볼 수가 없게 되었다. 살갑고 고맙던 그 마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받을 사랑만 칭얼거리며 계산하는 이가 되지 마십시오. 주께서 명하신 사명에 눈뜨십시오.

아멘.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풍족한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지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주님의 은혜의 빛을 전하는 빛의 사도들이 되겠습니다. 종종 나약해지려는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 장영숙 전도사	말씀 / 김재흥 목사
기도 / 임원민 집사	기도 / 이성운 전도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민주 선생 한상의 장로	인도자 정영선 권사

2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김 극 박홍재 백혜숙 권미정
	헌금위원	조병무 박혜경(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커 가는 아미쉬 공동체

아이가 계승하는 단단한 전통

전기, 자동차 등에 의한 현대문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사회가 북미에 있다고 들은 것은 20여 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아직 교토대학 공학부에 근무하며 장래의 기술사회를 짚어질 젊은이들의 교육과 연구에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과 자원 양면에서 과학기술사회의 몰락과, ‘쓰고 버리는 것은 미덕’이라며 들떠있는 세상에서 심신이 병든 인간의 퇴폐를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에 들은 아미쉬의 간소한 생활의 이야기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한번 방문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 기회가 올 봄에 주어졌다(1999년). 현대문명을 상징하는 자동차의 동네 디트로이트에서 소형 비행기로 한 시간 만에 오하이오주의 한 동네인 아크론에 도착하여, 다시 고속도로로 반시간 남짓 달려가니 그곳에 아미쉬 마을이 있었다. 고속도로의 속도에 익숙한 차는 주도로에 들어서도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렸기 때문에 겁이 났다. 앞서 달리는 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짙은 회색의 검소한 상자모양의 수레를 끌고 달리는 마차를 추월해 갔다. 효율과 속도의 문명이 간소함과 전통의 문화를 추월하고 있었다.

경사가 완만한 구릉에 목초지가 펼쳐져 있고, 방목하는 소와 말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어미말의 젖을 빠는 망아지의 모습도 보였다. 그 사이에 흰색 집과 싸일로(silo)와 창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전봇대도 없고 전깃줄도 가설되어 있지 않았다. 아미쉬의 농가였다. 맑게 갠 푸른 하늘아래 전봇대도 전깃줄도 없는 풍경은 투명한 상쾌함이었다. 숲처럼 서 있는 전봇대에 거미줄처럼 하늘을 덮은 전깃줄과 전화선, 물질이 풍요한 일본의 그 조밀하고 복잡함에 비하면 어떻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나의 기억 속에 있는 50여 년 전의 농촌도 한가로웠다. 말, 염소, 닭들의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의 원기 왕성한 환성이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은 옛날 일이 되었다. 그 한가로움을, 고도성장이 가져온 물량의 문명이 홍수처럼 밀려와 떠내려보낸 것 같이, 눈앞의 아미쉬도 그 홍수가 엄습하여 떠내려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예상과 달리 이들의 사회는 날마다 커지고 있다고 하였다. 최근 20년 사이에 인구가 배로 늘어났

다고 하니 놀라웠다. 북미 28개 주에 20만 명의 규모로 커지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된 일일까?

물질이 풍요한 물질문명에 지쳐, 이들 세계의 간소함에 존경과 동경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사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드문 일이다. 전통을 지키는 저들의 사회가 굳게 닫혀있기 때문이다. 일상어는 펜실바니아 닷지 즉, 오래된 독일 방언에서 유래된 독특한 말이다. 루터시대부터 독일어 성서가 저들 신앙의 ‘헌법’이며, 생활과 문화 속에서 엄격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지켜온 재세례파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 성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신앙의 고백과 그의 준수는 신 앞에서 절대적인 것이 된다. 욕구불만에 이끌려 문명사회 관습에 친숙해진 자에게는 그 벽의 두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리라.

그 사회가 커지는 주된 이유는, 자라난 아이들이 남아서 그 전통 사회를 지키기 때문이다. 일본의 농촌사회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과는 대비된다. 아이들이 많은 가정에서 그들은 근면하고 신앙심 깊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 (일본 격언 중에 아이는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역자 주) 지금도 지키고 있는 마경(馬耕, 말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일) 농사는 고양이의 손도 빌린다는 말처럼 아이들의 손까지도 필요로 한다. 밀레의 그림에서 밖에 볼 수 없게 된 농(農)과 신앙의 연결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인가?

“이 아이들을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기르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된 사명입니다”라고 애교 넘치는 말을 하는 아미쉬 어머니의 상냥한 표정이 아이들을 붙들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있어 아이들 교육은 정치에 맡길 수 없는 일이다. 지금도 8개 학년 1학년씩인 자신들의 학교를 지키고 있다. 전통적인 순교정신으로 공교육 의무화를 기피한 것이다. 4반세기 전에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인가를 얻었으며, 지금은 작은 학교에 아이들의 환성이 울려 퍼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아이들에 의해 지켜지는 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을 리 없다. 복지세는 내지 않는다고 한다. 가정의 튼튼한 결속과 그 위에 강한 신앙으로 묶인 사회에는 서로 협동하는 편안함과 안정이 있기 때문이다.

텔레비전과 전화 등 문명의 이기(利器)앞에 가족도 지역도 산산조각이 나버린 ‘풍요한’ 일본의 쓸쓸한 현실을 부끄럽게 생각했다.